



보도 일시	<전매체> 2. 7 (화) 14:00	-
-------	----------------------	---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봉덕 (044-204-7500)
		담당자	사무관	배주형 (044-204-7509)
			전문관	이가형 (044-204-7514)

## 2022년 중소기업 수출, 전년대비 1.7% 증가한 1,175억 달러 기록

- (총괄) 2022년 중소기업 수출액은 1,175억달러로 전년 1,155억달러 대비 1.7% 증가
- (품목) 10대 수출품목 중 자동차부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자동차, 기타기계류 등 4개 품목 수출이 증가
- (국가) 10대 수출국 중 미국, 일본, 대만, 인도, 멕시코 등 5개국에서 수출액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2년 중소기업 수출실적을 발표했다.

### ① 수출액 및 수출기업 분포

2022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1,175억 달러로, 세계(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2년 연속 1,100억달러를 돌파하였다.

\*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20) 1,007(△0.2%) → ('21) 1,155(+14.7%) → **(22) 1,174.6(+1.7%)**

수출 중소기업 수는 92,578개로 전년(92,114개사)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수출액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 기업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수출 기업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수출액 1억달러 이상 기업이 2021년 57개에서 2022년 64개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 2022년 수출규모별 중소기업 수 (개사, %) 】

수출규모	'21년	'22년	비중	증감률
100만달러 미만	77,091	77,472	83.7	0.5
100~500만달러	10,455	10,542	11.4	0.8
500~1,000만달러	2,306	2,290	2.5	△0.7
1,000만달러 이상	2,262	2,274	2.5	0.5
1,000~5,000만달러	2,026	2,027	2.2	0.05
5,000만~1억달러	179	183	0.2	2.2
<b>1억달러 이상</b>	<b>57</b>	<b>64</b>	<b>0.1</b>	<b>12.3</b>
합 계	92,114	92,578	100.0	0.5

② 중소기업 수출의 품목별 · 국가별 특징

< 주요 품목 >

중소기업 수출품목으로는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이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며, 중소기업 10대 품목 집중도는 31.4%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품목 집중도 57.9%보다 낮게 나타났다.

10대 품목 중 자동차(+18.3%), 기타기계류(+18.2%)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고, 자동차부품(+6.9%), 반도체제조용장비(+6.2%)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 총 수출 10대 품목 (억 달러, %) 】 【 중기(中企) 수출 10대 품목 (억 달러, %) 】

구 분	수출액	비중	증감률	구 분	수출액	비중	증감률		
1	반도체	1,292	18.9	1.0	1	플라스틱 제품	51	4.4	△4.9
2	석유제품	629	9.2	65.1	2	화장품	46	3.9	△7.6
3	자동차	541	7.9	16.4	3	<b>자동차부품</b>	<b>44</b>	<b>3.8</b>	<b>6.9</b>
4	합성수지	281	4.1	△3.7	4	합성수지	40	3.4	△4.6
5	자동차부품	233	3.4	2.4	5	<b>반도체제조용장비</b>	<b>39</b>	<b>3.3</b>	<b>6.2</b>
6	철강판	224	3.3	△0.4	6	반도체	31	2.7	△6.2
7	평판디스플레이 및 감지기(센서)	213	3.1	△1.1	7	<b>자동차</b>	<b>31</b>	<b>2.7</b>	<b>18.3</b>
8	정밀화학원료	188	2.7	73.6	8	의약품	29	2.5	△12.1
9	선박류	182	2.7	△20.9	9	철강판	29	2.5	△5.8
10	무선통신기기	172	2.5	6.5	10	<b>기타기계류</b>	<b>29</b>	<b>2.4</b>	<b>18.2</b>
상위 10대					상위 10대				
전 체					전체				

전년대비 증가 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자동차(+4.8억달러), 기타기계류(+4.4억달러), 산업용전기기기(+4.1억달러)가 있다. 자동차는 러시아 및 인근 국가로 중고차 수출이 증가하며 2년 연속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기타기계류는 완성차·전기차 시장 호조세로 중국, 미국, 헝가리 등으로 차부품 및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 장비, 베트남으로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2022년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으로 진입하였다.

산업용 전기기기 또한 완성차·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 중국, 멕시코 등으로 전장품, 전기차 충전기, 전자제품 전원장치 등 수출이 증가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반면, 중소기업 1, 2위 수출품목인 플라스틱 제품(△4.9%), 화장품(△7.6%)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 등 세계(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다.

### < 수출 국가 >

10대 수출국가 중 미국, 일본, 대만, 인도, 멕시코 등 5개국 수출액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일본을 제외한 4개국 모두 수출액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다.

【 2022년 중소기업 수출액 10대 국가 】

구분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대만	인도	홍콩	인니	러시아	멕시코
수출액 (억달러)	219	<b>171</b>	112	<b>109</b>	<b>35.0</b>	<b>33.3</b>	30.9	29.3	27.1	<b>26.8</b>
수출증감 (억달러)	-19.5	<b>24.2</b>	-0.8	<b>2.2</b>	<b>1.9</b>	<b>3.2</b>	-5.9	-0.1	-0.4	<b>2.4</b>
수출증감률 (%)	△8.2	<b>16.5</b>	△0.7	<b>2.1</b>	<b>5.7</b>	<b>10.6</b>	△15.9	△0.5	△1.6	<b>10.0</b>

미국(+16.5%)은 완성차 시장 호조세에 따라 중소기업 대(對)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부품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육성정책의 영향으로 전자응용기기·기계요소·산업용 전기기기 등 기계류 수출 또한 두 자릿수 성장하였다.

인도(+10.6%)는 현지 자동차 공장 증설에 따른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하고, 인도 정부의 기반(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기계류 수출 호조로 2년 연속 수출이 증가하였다.

북미지역 자동차 생산거점인 멕시코(+10.0%)는 자동차부품, 산업용 전기기기, 금형 등 자동차 제조 관련 품목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며,

대만(+5.7%)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18배 가까이 증가하고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출 견조세가 이어졌다.

반면, 중국(△8.2%)·홍콩(△15.9%)은 강력한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생산 및 소비 둔화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주요 품목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전체 수출 또한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 70.4%보다 낮았다.

또한, 단일 국가(1개국)에만 수출하는 기업 비중은 55.5%, 2개국 이상 수출하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 비중은 44.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단일 국가 수출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 < 온라인 수출 >

2022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7.1억달러(+8.5%)로,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온라인 총 수출액 9.1억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은 78.4%로, 전년(76.7%)에 비해 비중이 상승하며 온라인 수출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강세를 보였다.

품목으로는 음향기기(음반 등, +38.0%), 컴퓨터(포토프린터 등, +101.2%) 등이 강세를 보였고, 국가로는 한류 영향으로 한국 인지도가 높고, 온라인몰이 발달한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이 활발했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수는 3,818개(+ 21.6%)로 전년 3,148개사 대비 670개사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 온라인 수출 상위 5대 품목(백만달러, %) 】				【 온라인 수출 상위 5대 국가(백만달러, %) 】			
구분	'21년	'22년	증감률	구분	'21년	'22년	증감률
화장품	261.1	242.4	△7.1	미국	205.5	250.0	21.6
의류	100.6	96.8	△3.8	일본	231.8	195.5	△15.7
음향기기	56.9	78.6	38.0	중국	109.7	112.7	2.7
컴퓨터	26.5	53.2	101.2	싱가포르	19.0	19.5	2.5
문구 및 완구	23.0	26.6	15.8	말레이시아	7.9	14.2	79.1
주요품목 소계	468.1	497.6	6.3	주요국가 소계	573.9	591.8	3.1
온라인수출액	658.3	714.4	8.5	온라인수출액	658.3	714.4	8.5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2022년 중소기업 수출은 2년 연속 증가했으나, 세계(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하반기부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2023년에도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1.26일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본 동향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를 기초로 2022년 중소기업 수출실적 분석
- 수출기업수는 수출자(화주) 기준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기업규모 구분(대·중견·중소)은 발표당시 가장 최근 기업규모별 변동현황을 반영하여 작성
  - \* (대기업) '22.11월 공정위 대규모 기업집단 반영, (중견기업) '20년 결산 기준(산업부)
- 관세청 연간 무역통계 확정('23.2월) 및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규모구분('23.4월) 후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



## 참고 1

## '22년 연간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 ① (플라스틱제품 : 51.2억달러,  $\Delta 4.9\%$ )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휴대폰 필름류(베트남  $\Delta 11.7\%$ )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 일회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도 6월부터 감소하며 연간 수출 감소로 전환
- 반면, 북미 건축시장 호황으로 바닥재(+22.9%)와 헝가리 이차전지 설비 확대로 배터리 분리막(+6.9%) 수출은 증가하며 감소세 보완

\* 플라스틱제품 수출액(억달러) : ('20) 52.2 → ('21) 53.9 → ('22) 51.2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중국 9.9( $\Delta 15.6$ ), 미국 9.5(12.0), 베트남 7.0( $\Delta 10.2$ ), 일본 3.1( $\Delta 5.7$ ), 헝가리 2.2(16.6), 멕시코 1.4(0.8) 등

- ② (화장품 : 45.5억달러,  $\Delta 7.6\%$ ) 최대시장인 중국(비중 30%) 수출 부진 장기화로 감소세를 주도하며 '21년에 이어 감소폭 확대
- 기초화장품(비중 38.4%,  $\Delta 9.7\%$ )이 중·미·일 주요국 모두 감소,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비중 5.3%, +10.3%)은 베트남, 태국 등으로 수출 증가

\* 화장품 수출액(억달러) : ('20) 50.0 → ('21) 49.2 → ('22) 45.5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중국 13.7( $\Delta 25.9$ , 23개월 연속), 미국 6.2( $\Delta 0.5$ ), 일본 5.3( $\Delta 7.1$ ), 베트남 3.0(12.1), 러시아 2.6( $\Delta 4.8$ ), 홍콩 2.1( $\Delta 23.6$ ) 등

- ③ (자동차부품 : 44.1억달러, +6.9%) 하반기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개선에 따른 완성차 생산 호조세로 미국, 멕시코 등으로 수출 확대, 특히 베트남 수출이 6월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며 큰 폭으로 증가

\* 자동차부품 수출액(억달러) : ('20) 38.8 → ('21) 41.2 → ('22) 44.1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미국 13.3(6.2), 중국 3.6( $\Delta 8.2$ ), 멕시코 3.3(28.4), 일본 3.2( $\Delta 4.4$ ), 베트남 1.8(34.5), 러시아 1.6(24.5) 등

- ④ (합성수지 : 39.7억달러,  $\Delta 4.6\%$ ) 수출단가는 상승하였으나, 최대 수출국인 중국(비중 29%) 감소 영향으로 연간 수출이 감소로 전환
- 특히 플라스틱 용기 재료인 폴리프로필렌( $\Delta 10.6\%$ )과 가전·전자제품 소재인 ABS수지( $\Delta 31.5\%$ ) 수출이 감소

※ 합성수지 수출 단가(달러/kg) : ('21년) 1.84 → ('22년) 1.88 (+2.5%)

\* 합성수지 수출액(억달러) : ('20) 28.0 → ('21) 41.6 → ('22) 39.7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중국 11.5( $\Delta 15.7$ ), 베트남 7.4( $\Delta 1.3$ ), 미국 2.3(6.1), 인도 1.7( $\Delta 8.6$ ), 인도 1.4( $\Delta 17.2$ ), 튀르키예 1.3( $\Delta 10.4$ ) 등

⑤ (반도체제조용장비 : 39.3억달러, +6.2%) 최대 수출국인 중국(비중 44%) 수출이 4분기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미국 프렌드쇼어링 정책 영향으로 미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1억달러↑)하고 대만·일본 등 주요국 수출 호조세

\*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액(억달러) : ('20) 31.9<sup>역대 3위</sup> → ('21) 37.0<sup>2위</sup> → ('22) 39.3<sup>1위</sup>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중국 17.4(△1.0), 대만 5.2(15.9), 미국 5.0(26.7), 일본 2.9(26.2), 네덜란드 2.7(10.6) 등

⑥ (반도체 : 31.3억달러, △6.2%) 수출단가 하락과 함께 중국·홍콩으로 시스템 반도체(비중 61%) 수요가 감소하면서, '20년 9월부터 이어온 호조세를 6월 마감하고 연간 수출 감소로 전환

※ 반도체 수출단가(달러/kg) : ('21년) 459.0 → ('22년) 394.3(△14.1%)

\* 반도체 수출액(억달러) : ('20) 22.7 → ('21) 33.3 → ('22) 31.3  
 - 시스템반도체 18.9억달러(△1.2%), 메모리반도체 3.5억달러(△23.3%)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홍콩 7.9(△11.6), 중국 6.9(△23.3), 베트남 5.6(13.2), 싱가포르 1.9(94.0), 태국 1.6(66.2), 대만 1.4(△59.4) 등

⑦ (자동차 : 31.2억달러, +18.3%) 러·우 전쟁 여파로 상반기 감소세(△43.3%)였던 對러시아 중고차 수출이 하반기 회복(+35.2%)되고, 주변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이 세 자릿수 이상 증가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 : ('20) 18.4 → ('21) 26.3<sup>역대 3위</sup> → ('22) 31.2<sup>1위</sup>, (2위는 '13년)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러시아 7.0(3.2), 요르단 4.9(20.3), 카자흐스탄 3.0(471.9), 키르기스스탄 2.4(1,069.6), 이집트 1.6(36.8) 등

⑧ (의약품 : 29.2억달러, △12.1%) 상반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본, 미국, 대만으로 진단키트 수출이 각각 3억달러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하반기 방역 완화 등으로 '21년 1위 수출국인 독일 수출이 급감(獨 비중 '21년 36% → '22년 6%)하며 연간 수출 감소로 전환

\* 의약품 수출액(억달러) : ('20) 22.7 → ('21) 33.2 → ('22) 29.2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일본 4.2(333.0), 미국 3.8(594.4), 대만 3.3(1,688.9), 캐나다 2.5(2,215.2), 독일 1.7(△85.4), 중국 1.2(△24.1) 등

⑨ (철강판 : 28.9억달러,  $\Delta 5.8\%$ ) 글로벌 수요 둔화로 수출물량이 감소( $\Delta 11.8\%$ )하며 연간 수출이 감소로 전환했지만,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벨기에 철강유통기업으로 수요가 증가

\* 철강판 수출액(억달러) : ('20) 22.4  $\rightarrow$  ('21) 30.7 역대 1위  $\rightarrow$  ('22) 28.9 2위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멕시코 2.9( $\Delta 2.6$ ), 태국 2.5(0.1), 베트남 2.1( $\Delta 15.5$ ), 인니 1.9(19.4), 벨기에 1.8(61.5) 등

⑩ (기타기계류 : 28.6억달러, +18.2%)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 장비(마·헝가리)와 디스플레이제조용 장비(베트남) 수출이 대폭 증가하며 10대 품목으로 진입('21년 11위)

\* 기타기계류 수출액(억달러) : ('20) 26.9  $\rightarrow$  ('21) 24.2  $\rightarrow$  ('22) 28.6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중국 7.7(1.3), 미국 4.2(56.8), 베트남 3.8(36.4), 헝가리 1.6(207.3), 일본 1.6(2.8) 등



① (중국 : 219.3억달러, △8.2%) 화장품 수출이 애국소비, 수입규제 영향으로 대폭 감소(5억달러↓)하고, 코로나19 봉쇄와 경기둔화의 여파로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등 주요 소비재 수출이 하반기 감소폭을 확대하며 연간 수출 감소로 전환

\* 월별 對중국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1월17(△1.8) → 18(+11.0) → 3월22(+5.1) → 19(△5.4) → 5월19(△3.0) → 6월18(△5.2) → 7월19(△6.2) → 18(△6.9) → 9월17(△16.9) → 10월17(△17.1) → 11월17(△21.3) → 12월18(△22.3)

\* 對중국 수출액(억달러) : ('20) 227.3 → ('21) 238.9 → ('22) 219.3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반도체제조용장비) 17.4(△1.0), (화장품) 13.7(△25.9), (합성수지) 11.5(△15.7), (플라스틱제품) 9.9(△15.6) 등

② (미국 : 171.0억달러, +16.5%)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부품(비중 7.8%)과 플라스틱 제품(바닥재) 호조세에 더해,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른 미국 내 설비투자 확대로 전자응용기기·기계요소·산업용전기기기 등 기계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

\* 對미국 수출액(억달러) : ('20) 128.7 → ('21) 146.8<sup>2위</sup> → ('22) 171.0<sup>역대 1위</sup>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자동차부품) 13.3(6.2), (플라스틱제품) 9.5(12.0), (화장품) 6.2(△0.5), (전자응용기기) 5.8(17.2), (기계요소) 5.3(20.0), (산업용전기기기) 5.2(53.0) 등

③ (베트남 : 112.4억달러, △0.7%) 합성수지(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제품(휴대폰 필름), 무선통신기기(휴대폰 부품) 등 상반기 증가한 품목이 하반기 현지 스마트폰 공장 감산 영향으로 감소로 전환하며 연간 수출 감소 기록

\* 對베트남 수출액(억달러) : ('20) 98.6 → ('21) 113.2 → ('22) 112.4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합성수지) 7.4(△1.3), (플라스틱제품) 7.0(△10.2), (반도체) 5.6(13.2), (편직물) 5.2(△2.8), (무선통신기기) 4.1(△23.5) 등

- ④ (일본 : 109.3억달러, +2.1%) 코로나 재확산으로 의약품(진단키트) 수출이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하고, 국내 석유제품 수요가 확대되면서 1위 품목으로 급부상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
- 다만, 종전 1위 품목인 화장품은 소비수요 부진으로 기초화장품 (△21.8%)을 중심으로 감소

\* 對일본 수출액(억달러) : ('20) 95.0 → ('21) 107.0 → ('22) 109.3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석유제품) 9.6(19.3), (화장품) 5.3(△7.1), (의약품) 4.2(333.0), (자동차부품) 3.2(△4.4) 등

- ⑤ (대만 : 35.0억달러, +5.7%) 코로나 확산으로 2분기 의약품(진단키트) 수요가 급증(2분기, +7,272%)하며 연간 수출이 18배 가까이 증가, 전년에 이어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 견조세

\* 對대만 수출액(억달러) : ('20) 26.2 → ('21) 33.1<sup>2위</sup> → ('22) 35.0<sup>역대 1위</sup>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반도체제조용장비) 5.2(15.9), (의약품) 3.3(1,688.9), (반도체) 1.4(△59.4), (화장품) 1.3(31.2) 등

- ⑥ (인도 : 33.3억달러, +10.6%) 현지 자동차 공장 증설에 따른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하고, 인도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기계류 수출 호조로 10분기 연속 증가('20년 3분기 이후)

\* 對인도 수출액(억달러) : ('20) 25.4 → ('21) 30.1<sup>2위</sup> → ('22) 33.3<sup>역대 1위</sup>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자동차부품) 1.6(12.2), (합금철선철및고철) 1.5(△28.7), (철강판) 1.5(11.8), (합성수지) 1.4(△17.2), (기타기계류) 1.3(103.2), 산업용 전기기기 1.1(45.7) 등

- ⑦ (홍콩 : 30.9억달러, △15.9%) 강력한 코로나 봉쇄조치 여파로 주요 품목인 반도체, 화장품, 컴퓨터, 무선통신기기(휴대폰) 등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하며 연간 수출 감소로 전환

\* 對홍콩 수출액(억달러) : ('20) 34.1 → ('21) 36.8 → ('22) 30.9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반도체) 7.9(△11.6), (화장품) 2.1(△23.6), (컴퓨터) 1.4(△31.9), (무선통신기기) 1.0(△55.5) 등

⑧ (인도네시아 : 29.3억달러,  $\Delta 0.5\%$ ) 소비부진에 따른 섬유업계 불황으로 편직물 및 섬유기계 수출이 감소했지만 철강제품이 신수도 건설 영향으로 연중 증가세를 이어가며 감소폭을 완화

\* 對인도네시아 수출액(억달러) : ('20) 23.8 → ('21) 29.4<sup>역대 1위</sup> → ('22) 29.3<sup>2위</sup>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편직물) 1.9( $\Delta 13.4$ ), (철강판) 1.9(19.4), (철강관및철강선) 0.9(94.9), 섬유및화학기계 0.7( $\Delta 27.4$ ) 등

⑨ (러시아 : 27.1억달러,  $\Delta 1.6\%$ ) 전쟁 여파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 $\Delta 16.9$ )했지만 하반기 중고차 및 관련 부품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11.1), 6개월 연속 증가하며 감소세를 완화

\* 對러시아 수출액(억달러) : ('20) 23.0 → ('21) 27.6 → ('22) 27.1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자동차) 7.0(3.2), (화장품) 2.6( $\Delta 4.8$ ), (자동차부품) 1.6(24.5), (플라스틱제품) 0.9( $\Delta 9.5$ ) 등

⑩ (멕시코 : 26.8억달러, +10.0%)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멕시코가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주목받으며, 자동차부품, 산업용 전자기기, 금형 등 자동차 제조 관련 품목 수출이 크게 성장

\* 對멕시코 수출액(억달러) : ('20) 17.9 → ('21) 24.4<sup>2위</sup> → ('22) 26.8<sup>역대 1위</sup>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자동차부품) 3.3(28.4), (산업용전기기기) 3.0(17.5), (철강판) 2.9( $\Delta 2.6$ ), (금형) 1.0(11.5) 등